圓寂

태공당 월주대종사

(1935~2021)

臨終偈(임종게)

天地本太空(천지본태공)
一切亦如來(일체역여래)
唯我全生涯(유아전생애)
卽是臨終偈(즉시임종게)
喝!(할)

하늘과 땅이 본래 크게 비어있으니
일체가 또한 부처이구나.
오직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애가
바로 임종게가 아닌가.
할!